

'내가 행복했던 순간' 도화지에 담다

'제12회 가천그림그리기대회' 군산서 성황리 개최... 부문별 수상자 10월 발표

가천길재단(설립자 이길여)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교육지원청 등이 후원한 제12회 가천그림그리기대회가 지난 13일,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열렸다.



가천길재단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교육지원청 등이 후원한 제12회 가천그림그리기대회가 지난 13일, 군산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열렸다.

올해 12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학생과 가족 등 약 1만여 명이 참가하며 성황을 이룬 가운데, 참가자들은 '내가 행복했던 순간'을 주제로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도화지에 재치있게 표현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익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김의겸 국회의원, 이성이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윤성태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이태훈 길의료재단 의료원장 등이 참석하여 직접 도화지를 나눠주면서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상 등 다양한 상장과 작품집, 부상을 제공한다.

대회에 참가한 정시원 학생(원주 삼례동초 1)은 "행복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빠랑 엄마랑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고, 놀이동산에서 신나게 놀이구도 탔던 추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오늘 그린 그림이 작품집에 실리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가천문화재단 윤성태 이사장은 "가천그림그리기대회는 우리 아이들이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

는 축제의 장"이라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는 전북 군산 출신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2014년 모교 군산대 야초등학교에 국내 최대수준의 '가천이길여도서관'을 건립·기증한 것을 기념해 2015년부터 개최됐다. 이후 매년 군산은파호수공원에 학생과 가족 등 1만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가족축제로 자리잡은 전국 규모의 그림그리기대회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나라를 오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동 기획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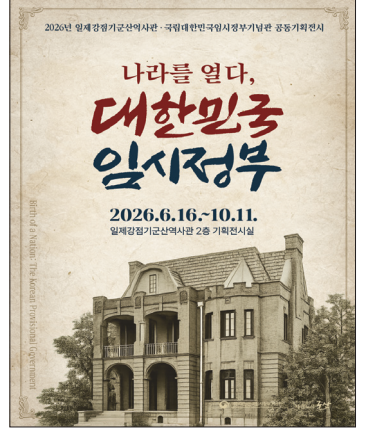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공동으로 오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기획전시 '나라를 오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범과 독립운동의 전개, 광복 후 한국의 여정 속에서 군산이 맺은 역사적 접점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한 군산 사람들의 활동과 광복 이후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 과정에서 군산비행장이 지닌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환국과 계승의 흐름을 따라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나로 세워지다'에서는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헌법과 의회를 갖춘 민주공화제 정부로 출범한 과정을 소개한다.

2부 '대한민국의 뿌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행정, 군사, 외교, 교육, 구호 등 여러 분야에서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살펴본다. 또한 군산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한 고관홍, 이인식, 최재형 지사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독립운동이 연결된 양상을 조명한다.

3부 '그대들 돌아오시나니'에서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 과정을 소개한다. 이 가운데 1945년 12월 1일 임시정부 요인 2진을 태운 수송기가 폭설로 군산비행장에 착륙한 사실을 통해, 군산



비행장이 임시정부 환국의 길목이 되었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4부 '대한민국 여기서 시작하다'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이 광복 이후 대한민국으로 계승된 과정을 소개한다. 헌법, 국호, 태극기, 애국가, 국경일 등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여러 상징 속에 남아있는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시 말미에는 태극기 색칠하기, 한국광복군 깃발 만들기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요소를 마련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군산의 독립운동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김민호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전' 완주서 열린다

완주문화관광재단, 19일~8월 2일 '다채로운 결, 열린 공예' 개최

완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은 국립현대미술관(MMCA) 미술은행과 협력하여 '2026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전 '다채로운 결, 열린 공예'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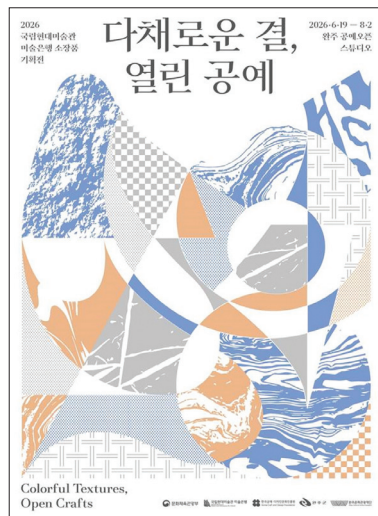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45일간 완주 공예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완주 공예오픈스튜디오 개관 이래 처음으로 선보이는 기획전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의 우수한 소장품 15점을 완주 지역에 유치해 수준 높은 동시대 미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전시는 공예를 중심으로 회화와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2026 공예주간'과 연계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전시 '다채로운 결, 열린 공예'는 도자, 섬유, 금속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을 통해, 산업단지와 주거 지역이 공존하는 완주군만의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공예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조명한다. 완주군은 산업과 일상, 노동의 환경이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지

역이다. 본 전시는 이러한 지역적 맥락에 주목하여, 산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의 '물성(物性)'이 공예가의 섬세한 창작 과정을 거쳐 어떻게 예술적 표현으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공예가 특정 전시 공간에 갇힌 장르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환경과 맞닿아 있는 생활 문화이자 공공자산임을 보여준다.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들을 산업단지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재료와 형태가 지닌 물성과 감각을 새롭게 환기시키며, 관람객들이 일상 속 환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한다. 특히 완주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민과 산단 근로자들이 일상 속에서 공예를 보다 현실적이고 친숙한 문화로 받아들이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협력하여 작품 무상 대여 및 운송,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받아 기획되었으며, 지역 주민 누구나 관람료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완주 공예오픈스튜디오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00~18:00) 운영되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자세한 일정은 완주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정음시립예술단 월간 상설공연 '연희' 24일 개최

정음시가 호남무도음악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시립예술단 제5회 월간 상설공연 '연희'를 오는 24일 오후 7시 연지아트홀 무대에 올린다.

시립예술단은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상설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한 해 동안 국악단 6회, 농악단 3회, 합창단 2회 등 총 11회의 무대가 열리는 가운데, 이번 5회 차 공연은 시립농악단이 맡아 신나는 연희 한마당을 준비했다.

무대는 정음농악 기반의 가락과 장단으로 알차게 채워진다.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흥겨운 옛타령과 농악의 진법을 살린 사물판굿, 정음농악의 꽃으로 불리는 부포놀이가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여기에 옛정수와 버나돌이가 짝을 이룬 놀이 연희극 '수타타'가 시각적 즐거움을 더한다. 죽방울놀이와 화려한 몸동작이 돋보이는 제상



소고놀이, 사자춤, 열두발상모 등 풍성한 볼거리도 연달아 펼쳐진다. /정음=김대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